

# خم술·혼술은 이제 그만?... 흔들리는 와인시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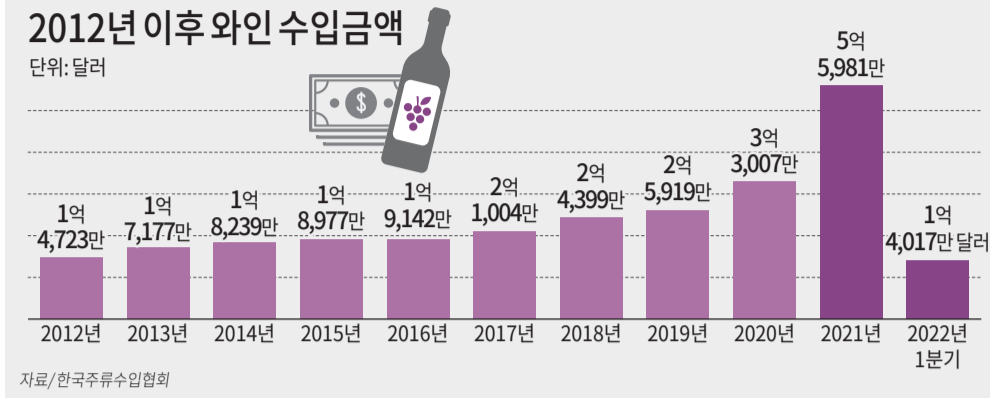
“이제 내가 지겨워진거야? 나도 집에서만 보는거 별로야. 밖에서도 데이트 하고 싶다고. 친구랑도 같이 만나면 안되는거냐고.”

2년 간의 열렬한 연애 끝에 권태기가 오고야 말았다. 와인 애기다. 팬데믹에 ‘홈술(홈+술), 혼술(혼자+술)’로 불기 시작한 와인 열풍이 주춤해졌다. 짧은 시간에 워낙 급성장한 여파도 있지만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와인에 손이 가는 일이 확실히 줄긴 줄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와인 수입 규모는 1억4017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6% 증가했다.

늘긴 늘었지만 지난 2년간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 자릿수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주춤하다.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에는 27%, 2년차인 2021년엔 무려 69.6%나 급증했다.

계다가 물량 기준으로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인에 돈을 쓰긴 했지만 확실히 덜 마셨단 얘기다.



올해 1분기 수입된 와인은 1740만 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었다. 와인이 인기를 끌면서 와인 수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에 나섰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소비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팬데믹 2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입 맥주는 올해 들어 소비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1분기 맥주 수입은 금액과 물량 모두 각각 22.6%, 24.5% 증가했다.

와인 시장의 변화를 놓고 해석은 분분하다.

먼저 절대적인 물량 소비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으니 좀 더 좋은 와인을 찾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와인이란 게 그렇기도 하다. 한 번 좋은 와인을 마셔보면 절대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고 자꾸만 더 ‘고급진’ 와인을 찾게 된다.

2020년 와인 세계에 입문한 ‘와린이(와인+어린이)’들이 작년엔 프리미엄 와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는게다.

실제 저가 와인의 대표 주자들인 칠레와 스페인, 아르헨티나 와인은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칠레 와인은 수입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동의 1위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감소했다. 스페인 와인도 수입량이 17.9%나 줄었다. 반면 와인 중주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은 올해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프랑스 와인은 금액 기준으로는 20.5%, 물량 기준으로는 8.3% 늘었고, 이탈리아 와인 역시 각각 13.4%, 16.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소비가 많이 늘었다. 스파

클링 와인은 수입액은 36.5%, 수입량은 42.4%나 급증했다.

반면 팬데믹에 따른 반짝 특수는 이제 끝났다는 이들도 많다. 금액 부분의 경우 소비자들 좋은 와인을 찾아 나섰다기 보단 와인 가격이 오르는데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다.

병과 코르크 등 와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중에 안 오르게 없을 정도고, 공급망 악화로 물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와인 가격은 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저가 와인들은 이제 높아진 눈높이를 못 맞춰 소비자들이 와인 자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지만 앞으로 와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질적은 물론 양적 성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와인 대중화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신세계L&B가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는 2050세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량이 작년 와인 음용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유는 대부분이 팬데믹에 따른 혼술과 홈파티 문화를 꼽았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위드코로나, 혹은 팬데믹이 끝나도 와인을 계속 마실 것인지는 아닌지.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스마트폰 벗어나야 생각이 보인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의 발표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8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현대인은 8초가 지나면 다른 대상으로 주의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친구와의 대화 도중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라는 말을 내뱉고, 독서를 하다가 “방금 읽은 책 내용이 뭐였지?” 하는 등의 혼잣말을 읊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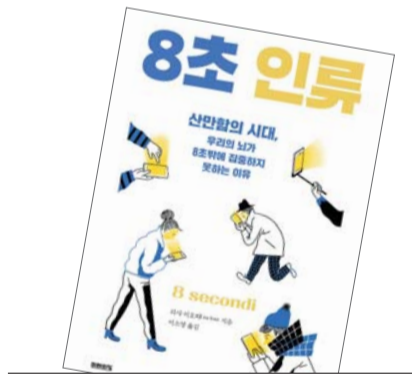
우리는 방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8초의 집중력을 가진 탓에 뇌에 저장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과거 저절로 외웠던 수백개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스마트폰의 도움 없이 확인할 길이 없고, 어딘가를 찾아갈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기억을 더듬어 목적지에 도착했던 능력은 내비게이션에 빼앗겼다.

책은 스마트폰의 연결성이 우리를 지배함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언제라도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척적박사가 손안에 있고, 모든 주요 소식에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상대의 메일에 즉시 답장할 수 있는 세상은 연결 면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 걸까.

저자는 새로운 귀족층은 소셜 미디어를 버리고, 이메일에 바로 답장하지 않으며, 최신 디지



#### 8초 인류

리사 이오미 지음/이소영 옮김/미래의창

털 기기로 무장하지 않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플랫폼과 디지털 기기에 매달리는 일이 ‘낙오자’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술의 강력한 유혹에 저항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고 의존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는 우리 주변에 흔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라도 스마트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 집중력 8초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저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종이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288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지음/황성연 옮김/월북

정치 양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식의 편 가르기 행태 속에서 삶의 영역이 이분법으로 갈라지는 세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의 다양성은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데도 우리는 한가지 선택만을 강요받는다. 두 개의 편이 생겨날 때의 문제는 자신에게 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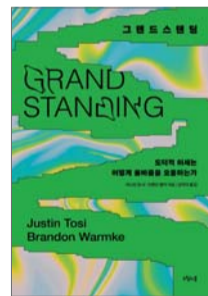
갈 이득이 없어도 ‘상대방이 지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무의식과 비이성이 만들어내는 정치에서는 정책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해지고 올바른 정당 정치로서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을 안기는 ‘미움의 정치’를 끝낼 방법을 제시하는 책.

344쪽. 1만8800원.

### 그랜드스탠딩

저스틴 토시, 브랜던 윌키 지음/김미덕 옮김/오월의봄

‘그랜드스탠딩’은 관심을 끌려는 과시적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대단한 분노를 표현하며, 자신이 역사의 옳은 편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을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저렇게까지 민감해야 굴 일인가 싶은 것에도 마치 무기 경쟁을 하듯 자신이 더 도덕적으로 예민하다는 사실을 전시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올바른 이야기’를 떠벌 삼아 관중들의 ‘좋아요’와 ‘하트’, 즉 관심을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랜드스탠딩’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해악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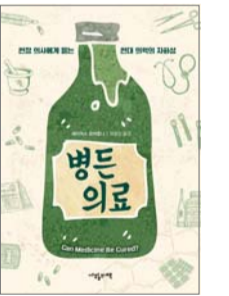


332쪽. 1만8500원.

### 병든 의료

세이머스 오마호니 지음/권호장 옮김/사월의책

바이오헬스 의료 불신의 시대다. 환자는 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의사에게 화를 내고, 의사는 이미 다 알아보고 온 듯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염증을 느낀다. 책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몰두하는 의료계, 예방을 명목으로 의미 없는 약물을 강요하는 의산 복합체, 치료와는 관계없이 연구실적만 중시하는 과학주의,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내세워 의료라는 공공재를 소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소비자주의 등 현대 의료의 문제를 낱알이 까발린다. 저자는 “치료받아야 할 것은 환자가 아니라 현대 의료 자체”라고 일갈하며 “질병을 파는 현대 의료”를 고발한다.



344쪽. 1만8000원.

## 뉴스비서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中정부, 봉쇄 2달 상하이 주민이 겪은 트라우마엔 ‘침묵’  
▲ 일상 회복하는 상하이... 코로나19로 봉쇄된 지 두달만 /사진 뉴스스

▲ 머스크 “주 40시간 사무실 근무 싫으면 회사 떠나라”  
▲ 미국, 우크라이나 원거리 공격 드론 4기 판매 추진



▲ ‘축구 전설’ 펠레 우크라이나 공격 푸틴에 “전쟁 멈춰 달라” /사진 뉴스스  
▲ “日정부, 2025년 전국 최저임금 9600원 이상 인상 방침”